

2010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1

복음서에서
(11)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
그리고
참 포도나무—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성경: 요 14:7-26, 15:1-16, 26-27

**I. 우리는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요 14:7-26.**

- A.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체현과 표현이시고(7-11 절), 그 영께서는 아들의 실재와 실재화이시다 (17-20 절).
1.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표현되시고 보이시며, 그 영으로서 아들께서 계시되시고 실재화 되신다—사 9:6, 고후 3:17.
 2. 아들 안의 아버지께서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표현되시고, 그 영이신 아들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실재화 되신다—요 14:9, 16-18.
 3. 삼일 하나님—아들 안의 아버지와 그 영이신 아들—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신다.
- B.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그리스도는 다른 보혜사, 실재의 영이시다—16-17 절.
1.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의 실재와 주님의 실재화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2. 실재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의 실재화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모두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의 실재가 그 영이시다—요일 5:6.
- C.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요 14:21-23.
1. 15:4-5 의 근거는 14:23 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으로서 나타나심으로 만들어진 상호 거처를 갖는다.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예비된다.
 2. 아버지와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속에 자리잡으시어 우리와 함께 거할 곳을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이다—2-3, 23 절.
 3.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롬 10:13.

II.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요 15:1-16, 26.

- A.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의 믿는 이들—은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한다—딤후 1:4, 엡 3:9, 요 15:1, 5 상.
- B.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자 창시자이시다.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다. 영 하나님은 실재와 실재화이시다. 가지들은 몸, 즉 단체적인 표현이다—1, 4-5, 26 절.
 - 1. 아버지의 온 존재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 실재이신 그 영 안에 실재화 된다—16:13-15.
 - 2.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가지들인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되도록 우리 안으로 넣어진다.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다—엡 3:16-21.
- C.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것이다—14:20.
 - 1.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는 서로 제자들과 상호내재하시는데,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안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었기 때문이다—15:4-5.
 - 2.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과의 이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 D.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성, 복사판, 확산, 확대이다—4-5, 16 절.
 - 1.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지들로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고전 6:17.
 - 2. 우리는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일부이므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요일 5:11-12.
 - 3.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가지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지들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요 3:15, 11:25, 14:6, 골 3:4.
 - 4.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다. 포도나무로부터,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는 가지들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요 15:4.
 - 5.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지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없으면 그분도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5 절.
- E.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으로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4-5 절, 고전 6:17.
 - 1.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1:9, 30.
 - 2.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데 달려 있다—요 15:2.
- F. 실재의 영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에 관해 증언하시고, 가지들인 믿는 이들을 통해 이 증거는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18-27 절.